

호주, 최신 친환경 규제 정책 동향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호주, 순환 경제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친화 규제 도입 가속화

호주는 다양한 순환 경제 관련 조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목된 플라스틱 농산물 가격 조회 코드(PLU) 스티커 사용 금지 논의, 재사용 가능한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상자 시범 사용, 그린 워싱 지침 등을 발표함**

1. **배경** : 호주는 인간과 환경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순환 경제를 추구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 및 실행안을 마련하고 있음. 호주 연방과학 산업연구기구(CSIRO)는 2021년 1월 '순환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한 바 있음. 2021년 발표한 국가 플라스틱 전략(National Plastics Plan)을 통해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재활용/재사용/퇴비화 정책을 추진 중임

2. 주요 규제 내용

1) 농산물의 가격 조회 코드(PLU) 스티커 금지 관련 동향

- 호주-뉴질랜드 국제 신선 농산물 협회(IFPA A-NZ)는 남호주가 제안한 '2025년 가격 조회 코드(PLU) 스티커 금지' 주장을 지지하며, 농산물에 부착하는 '**가격 조회 코드(PLU, Price Look-Up) 스티커***를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하도록 주장함**. 다만, 2025년은 농장, 포장업자, 소매업자가 기존 스티커를 대신할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촉박하므로, **퇴비화 가능한 접착제에 대해서는 허용해줄 것을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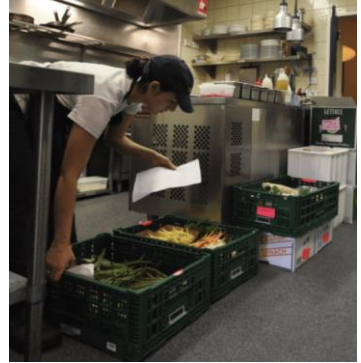
* 가격 조회 코드(PLU) 스티커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국제농산물표준연합(IFPS)의 기준에 따라 과일 및 농산물에 부착하는 스티커임.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며 정확한 농산물 식별, 가격 책정, 계산대의 거래 속도 향상 및 식품 안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함

** 2024년 남호주 정부는 「2025년 일회용/기타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법) 개정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퇴비화가 불가능한 가격 조회 코드(PLU) 농산물 스티커 금지를 주장함

당면 과제	- 퇴비화 가능한 스티커의 상업화에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함	[PLU 스티커 예시]  * 출처: CONSUMER REPORT.ORG
대안	- 식물성 잉크, 레이저 문신, 식품 안전 우표 등이 연구되고 있음 - 제안된 법 개정안에 따라 AS 인증을 받은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스티커(3개월 이내 분해 가능), 종이 스티커, 레이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허용	
권장 일정	-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이나, 2028년까지 단계적 도입 논의 중	

2) 빅토리아 주, 재사용 가능한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상자 시범 사용

- 2024년 3월 31일, 빅토리아 주에서 신선 농산물 운송 시 일회용 종이, 플라스틱 및 종이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상자를 도입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함**

프로젝트명	Victoria Unboxed 프로젝트	[재사용 플라스틱 상자]  * 사진 출처: Sustain.org.au
목 적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 폐기물 문제 및 일회용 포장재 의존도 감소	
주관사	식품 자선 단체인 서스테인(Sustain)/ 서스테이너블 빅토리아(Sustainable Victoria)	
수 행 내 용	농장 생산 농산물을 멜버른의 여러 곳으로 운송하도록 1,000개의 재사용 가능한 상자 배포	
주 요 변 화	1) 일회용 포장재 감소 2)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상자 도입	
기 대 효 과	1) 종이 및 플라스틱 포장재보다 구조적 안정성이 높은 재사용 포장재 2) 포장재 구매 빈도 및 필요성 감소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	

호주 친환경 규제 정책, 한국 친환경 기업에 기회이나 그린 워싱 주의할 필요

호주는 최근 들어 농산물, 식품 등에도 친환경을 내세운 정책을 펼치고 있음. 호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들은 호주의 친환경 중시 트렌드에 발맞추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다만, 이런 환경에서 실제 친환경 제품이 아님에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그린 워싱)하는 기업이 등장하여 호주의 규제 당국은 이를 제한하고자 **그린 워싱 방지를 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니 **호주 친환경 시장 진출시 주의가 필요함**. 지속적인 친환경 관련 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마련한 필요 있음 * 그린 워싱(Green Washing) 방지 지침 : 그린 워싱을 방지하고자 호주 규제 당국에서 8가지 지침 발표(아래 표 참고) 해당 지침을 어길 시,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00억원)의 과징금 또는 평가 가치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1	과학적 근거와 환경 영향에 대한 과장은 불가하며 정확하고 사실적 주장 필요
2	주장에 대한 근거 확보
3	제품의 순환주기에 대한 공개 부족이나 미세한 글씨로 인쇄된 정보 등,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4	제품의 자연분해가 온도·습도 등 특정 조건에서 이뤄짐을 명시
5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 필요
6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 (기술적 용어 사용 지양)
7	연관성 없는 시각적 요소 사용 금지
8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 시 공급업체명, 사용한 재생에너지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명시

출처

IFPA, IFPA A-NZ calls for national approach to fruit sticker ban, 2024.04.09

The Guardian, Victoria trials reusable crates for fresh produce to cut 'invisible' waste from supply chain, 2024.03.31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CCC), Making environmental claims: A guide for business, 2023.12.12